

- 주요 뉴스: 미국 6월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 인플레이션 가속화 여부 등에 관심
 - ECB, 급격한 기후변화 시 역내 은행권의 손실액은 700억유로에 이를 전망
 - 중국 6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당국의 물가안정 노력 등에 기인
 - 일본 참의원 선거, 집권 여당이 압승. 온건 성향 기사다 총리의 영향력 강화 예상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9%], 달러화 강세[+1.8%], 금리 상승[+20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향후 경기 연착륙 기대 등이 매수세 강화로 연결
유로 Stoxx600 지수는 양호한 2/4분기 기업실적 전망 등으로 2.5%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2.2%, 0.7%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1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2% 상승, 한국 CDS 하락

		7/8일	7/1일	전주말대비			7/8일	7/1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899.4	3,825.3	1.94%	국채 금리 10y	미국	3.08%	2.88%	20bp
	유럽	417.12	407.13	2.45%		독일	1.35%	1.23%	11bp
	중국	3,356.1	3,387.6	-0.93%	CDS 5y	한국	52bp	53bp	-1bp
	일본	26,517	25,936	2.24%		중국	80bp	84bp	-4bp
	한국	2,350.6	2,305.4	1.96%	위험 지표	EMBI+	457	458	-1bp
환율	달러지수	107.01	105.14	1.78%		VIX	24.64	26.70	-7.72%
	유로화	1.0185	1.0414	-2.20%		WTI유	104.79	108.43	-3.36%
	엔화	136.10	135.21	-0.65%	원자재	구리	353.2	361.9	-2.40%
	위안화	6.6946	6.7015	0.10%		금	1,742.5	1,811.4	-3.81%
	원화	1,300.4	1,297.3	-0.2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6월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 인플레이션 가속화 여부 등에 관심

- 7/13일(수)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CPI)를 발표할 계획. 로이터에 따르면, 연간 상승률은 8.7%를 나타내 전월(8.6%) 대비 소폭 상승 예상. 월간 상승률도 1.0%로 전월(1.0%) 대비 보합을 기록하여 2개월 연속 1.0% 이상을 기록할 전망
- 반면 근원 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추정(각각 6.0%→5.7%, 0.6%→0.5%). ING는 휘발유 및 식품 가격, 주거비, 항공료 등의 오름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도 향후 수 주 동안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다수의 정책위원들은 7월 0.75%p 금리인상을 지지. 다만 최근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둔화로 생산자물가는 다소 안정되는 상황
- ING의 James Knightly는 고물가 및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둔화가 6월 CPI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다만 이와 관련된 여파가 소비자 수요를 억제하는 모습은 향후 수개월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관측
- 한편 블룸버그의 Yelena Shulyatyeva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적어도 2/4분기에는 기술적 측면의 경기침체(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를 피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모든 연준 인사들이 협력

- 카슈카리 총재는 물가상승률을 목표치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 다만 이로 인해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언급. 향후 경기침체 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공급측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첨언
- 한편 연준의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암호화폐가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된 규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 특히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생태계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미국 5월 도매재고, 예상치 하회. 2/4분기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 미칠 소지

- 해당 재고는 전월비 1.8% 늘어 4월(2.3%) 대비 증가세 둔화. 재고는 성장률 측정에서 영향력이 큰 요소. 1/4분기에 기업재고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 성장률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냈으나, 2/4분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기 어려운 상황

■ ECB, 급격한 기후변화 시 역내 은행권의 손실액은 700억유로에 이를 전망

- 기후변화 관련 건전성 심사에서 탄소가격 급등, 대규모 홍수 혹은 가뭄 등이 발생하면 역내 은행들은 700억유로 규모의 손실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 다만 이는 신용 및 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험만을 고려한 것으로, 간접 효과에 따른 경제영향 등도 계산에 포함한다면 손실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중국 6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당국의 물가안정 노력 등에 기인

- 6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6.1% 올라 전월(6.4%) 대비 둔화. 이번 결과는 정부의 주요 원자재 가격 안정 노력, 일부 산업부문 생산의 회복 등이 원인. 산업별로는 주요 금속 및 가공부문이 하락한 반면 원유 및 가스 부문은 상승
- 한편 6월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2.5%로 23개월래 최고치. Minsheng Bank의 Ying Xiwen은 국내수요의 점진적 회복, 대외 요인에 의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 제시

■ 일본 참의원 선거, 집권 여당이 압승. 온건 성향 기시다 총리의 영향력 강화 예상

- 250명 참의원 가운데 절반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73곳(자민당 61, 공명당 12)에서 승리. 여당은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자민당 56, 공명당 14)을 합하면 전체 참의원에서 절반이 넘는 143석을 이미 확보. 이에 온건 성향인 기시다 총리가 분배를 강조하는 자신의 경제 정책을 추진할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7/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소비자신용 잔액(억달러): 223.5, 4월(380.7), 예상치(319.0)

■ 주요 경제 이벤트(7/1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강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노동시장의 이중적 상황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 - WSJ

(The Fed Can't Print More Workers)

-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양호한 노동시장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통화긴축을 지속. 그러나 노동시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 실업률은 3.6%로 매우 낮으며, 여전히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되는 등 고용증가가 용이한 상황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아직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임을 주의할 필요. 연준의 강력한 통화긴축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장기간 노동시장 복귀가 어렵기 때문
- 연준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정밀한 통화정책 시행을 통해 물가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2가지 책무의 동시 달성이 요구

■ 기업 실적, 공급망 충격 완화 시 고물가 여건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 Financial Times

(Why a higher inflation regime will eventually be good for investors)

- 저물가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장기간 지속되어 대부분의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 투자여건 조성. 하지만 그 이후 공급 충격에 의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면서 금리상승과 원료비 급증 등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될 소지
- 하지만 공급 충격에 의한 '나쁜(bad)' 인플레이션은 1년 이내에 완화될 것으로 예상. 만일 높은 인플레이션 여건이 유지된다면 임금 상승 등의 비용증가 요인도 있으나 인상된 제품가격 등으로 전체 기업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미국 달러화 강세, 연준의 긴축기조 유지 시 지속될 가능성 - WSJ

(Strong Dollar Wins the Inflation Battle in New Spin on Currency Wars)

■ 글로벌 고물가, 세계화의 후퇴 등 경제 시스템 교란 등에 기인 - 블룸버그

(Inflation Is Raging Because Globalization Is Fading)

■ 영국 경기침체 극복, 자본시장 개선 및 에너지 혁신 등이 필요 - Financial Times

(The UK economy is stagnant — and the reasons run dee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